

한국의 본풀이와 구비영웅서사시 비교론, 그 두 측면*

- <게사르(格薩尓)>, <므윈도(Mwindo)>, <문국성본풀이>,
<가문장아기본풀이>를 중심으로

박 종 성**

차 례

- | | |
|--------------------|---|
| I. 논의의 착점 | IV. 구비영웅서사시 형성과 <문국성본풀이>,
<가문장아기본풀이> |
| II. 대상 자료 | V. 결론을 대신하여 |
| III. 대상 자료의 同異의 樣相 | |

I. 논의의 착점

한국의 본풀이는 다른 민족의 구비영웅서사시와 비교론을 전개할 때에 적지 않은 가치를 지닌다. 내용의 상동성과 상이성을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구비영웅서사시의 형성의 문제를 바라보는 데에 있어서도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인식하면서 한국의 본풀이를 바라보는 두 가지 측면에 관해 논의를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3-074-AM0016)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진행하고자 한다.¹⁾

이 글은 비교 연구의 측면에서 논의를 전개하기 때문에 다른 민족의 구비영웅서사시를 한국의 본풀이와 견주어 보는 방식을 택한다. 대상 자료로 삼은 구비영웅서사시 넷이 모두 父子, 叔姪間의 대결, 곧 親族 내에서 영웅의 적대자가 등장한다는 공통점에 있다. 그래서 네 서사시의 대결양상이 어떻게 같고 다른가 하는 점을 살피는 것을 의도하고 논의를 전개할 수 있다. 구비영웅서사시가 전승민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상동적인 구성과 서사적 내용을 전승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 특별하게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사시 상호 간의 同異의 양상을 검토하고 그 원인을 탐색하는 자체가 하나의 완결된 논의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들 서사시의 同異의 양상을 드러내는 것에서 논의를 일단락한다. 본격적인 논의를 전개하기 위한 개별 민족들의 역사적·문화적 배경에 대한 검토는 후속 논문에서 감당하기로 한다.²⁾

대상으로 삼은 구비영웅서사시에서 필자가 관심을 갖는 두 번째는 구비영웅서사시의 형성의 양상을 다룰 수 있는 하나의 유형론을 시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시론적 성격을 띠게 된다. 그런 까닭에 자체로 완결된 결론을 이끌어 내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잠정적 결론이라도 드러내어 후속 연구의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후속 연구를 지속하면서 대상 자료의 범위를 확대해서 구체적 사례를 다채롭게 제시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구비서사시의 형성의 양상을 비교연구의 관점으로 검토할 때 논의의 출발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점이 문제이다. 이 글은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본풀이가 이와 같은 논의의 출발점으로 소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본풀이는 다양한 구비전승물을 수용하는 데에 인색하지 않아서 서사시 형성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

1) 이 글에서는 성격이 다른 두 관점이 함께 제시된다. 논의의 긴밀한 연계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 이는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한국의 본풀이가 갖는 비교 연구의 의의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기 위함이다.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네 자료들을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하는 방식을 택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후속 논의를 지속하고 이들을 포괄해서 큰 틀에서 체계를 설정할 때 약점을 필히 보완할 것임을 밝혀둔다.

2) 여기에 관해서는 別稿를 준비 중이다.

된다.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본풀이에 다채로운 내용들이 수용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 구비서사시로서의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원론적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이른바 ‘정통성’이라든가 ‘Originality’에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에 가치를 반감시킨다고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사정도 적극적으로 토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단형의 구비서사시 혹은 구비서정시들이 결합하여 장편의 혹은 완결된 하나의 구비서사시로 형성된다고 하는 견해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는 하지만, 구비서사시 형성의 양상을 그렇게 단순화해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³⁾ 구비서사시의 형성의 양상을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로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II. 대상 자료

이 글에서는 네 편의 구비서사시를 대상으로 삼아 논의를 전개한다. 티베트의 <格薩尒>, 자이레 공화국 니양가(Nyanga)족의 <므윈도:Mwindo>, 제주도의 <문국성본풀이>⁴⁾와 <가문장아기본풀이>⁵⁾가 그것이다.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면서 논의를 진행한다.

3) A. B. Lord, *Epic Singers and Oral Tradition*(N.Y. : Cornell Univ. Press, 1991)에서는 구비공식구 이론에 집착하여 구비서사시 형성의 양상을 단순화시킨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그런 까닭에 논의의 부당한 결론이 발견되기도 한다. 여기에 관해서는 별고를 관련 분야 학술지에 곧 발표할 예정이다.

4) <문국성본풀이>라는 용어는 제주도의 <송당본풀이>를 지칭한다. 이 본풀이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개별신본풀이가 수용된 양상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개별신본풀이를 추출해낸 강정식의 기존논의가 있다(강정식, 「濟州道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본풀이를 구비영웅서사시로 바라볼 때, 서사시 전체의 영웅을 부각시키는 의도를 가지고 <문국성본풀이>라고 용어를 잠정적으로 사용한다.

5) <가문장아기본풀이>는 <삼공본풀이>를 지칭한다. 다른 세 자료가 모두 서사시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것이어서 <삼공본풀이> 역시 주인공인 가문장아기를 내세워 서사시의 명칭으로 잠정적으로 사용한다.

1. 格薩尓⁶⁾

제1장 英雄誕生 : 영웅이 탄생하다.

티벳의 <格薩尓>에서는 格薩尓의 출생에 관한 내력을 상세하게 노래하고 있다. 天國里에 사는 白梵天王와 그의 부인 絳迥姐茉 사이에 頓(둔가), 둘째 아들은 頓雷(둔레이), 셋째 아들은 頓珠嘎爾保(둔쥬가얼바오)의 세 아들이 있었다 하고, 당시에 妖魔가 인간 세상에 내려와 횡행하면서 도를 어지럽혀 늙은 백성이 핍박을 받고 생활이 고통스러웠기에 大慈大悲한 觀世音菩薩과 白梵天王이 생각하여 천신아래에서 妖魔를 퇴치하고 인간 재난을 구할 것을 결정하였다고 하는 설정을 했다. 세 아들의 시험을 통하여 막내인 頓珠嘎爾保가 능력이 뛰어나 崑國이라는 인간 세상에 내려와 塔乍라는 小王의 長子인 僧唐若杰의 첫 번째 부인이 50세가 되던 해에 그녀의 腹中에 들어가 台貝達朗(格薩爾)을 태어나게 했다고 한다. 格薩尓의 출생과정은 특별하다.

갈찰랍말이 임신한 것을 안 셋째 부인 나제민은 남편 승당야걸의 사랑을 뺏길까 두려워하여 시동생인 초동과 모의하여 갈찰랍말이 부정하게 임신했다고 모함하자, 승당야걸이 갈찰랍말을 쫓아냈다고 했다.

다음해 령국에 눈이 오고 지진이 일어나는 날 황혼 무렵에 갈찰랍말이 진통을 느낀다. 이 때 九十 尺의 黑蛇(검은 뱀), 金黃顔色人, 綠玉顔色人, 7마리의 검은 뱀, 큰 수리, 황색의 개 등이 차례로 나와서 자기는 格薩尓를 도우러 왔으니 자기들이 필요할 때면 오겠다고 했는데, 이들은 格薩尓의 부친이 보내준 호위병들이라 했다. 마지막으로 格薩尓는 둥근 알로 태어났다고 해서 신이한 출생과정을 노래했다.

이 때 승당야걸의 둘째 부인 갈제민이 갈찰랍말보다 한 달 먼저 사내아이를 낳아 이름을 갑찰협알니라 했다. 갈제민은 한족이었기에 한족성인 ‘갑찰’을 따른 것이다. 이는 格薩尓의 큰형이다. 갈찰랍말이 아들을 낳은 것은 안 초동은

6) 王沂暖, 『格薩尓王本事』, 中國民間文藝出版社, 1985, 1-7쪽에 제1장 <英雄誕生>이라는 제목으로 그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후 제시된 서사시의 내용은 이 책을 따랐다. 한편 Alexandra David-Neel and The Lama Yongden trans., *The Superhuman Life of Ling*(London: Rider, 1933)의 내용은 『格薩尓王本事』와 세 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사뭇 다르다.

이를 없애려고 하지만 신이한 힘을 행사하는 格薩尔에 의해 쫓겨나게 된다. 格薩尔은 이 때 스스로를 대패달랑이라 불렀다.

부부 관계없이 태어난 아이가 私生兒로 핏박을 받아 쫓겨나게 되었다고 하여 어린 시절의 시련과 고난을 연결했다. 셋째 부인인 나제민이 남편의 동생인 초동과 계락을 꾸며 갈찰랍말을 쫓아내지만 결국 정치의 대상이 되어 格薩尔의 비범함을 드러내는 데에 소용되는 구실을 한다. 台貝達朗(格薩爾)이 여덟 살이 되어 귀환한 후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사냥을 해서 잡은 짐승들을 어머니에게 봉양하여 어머니를 건강하게 해 드리고 점점 재산을 불려갔다고 했다. 格薩尔의 비범한 행동과 풍채를 보고 숙부들이 자신들의 조카인 格薩尔가 예사 사람이 아니라 天神이 下降한 것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했다고 했다. 인간 세상을 구제하기 위하여 하강한 천신의 아들이 인간 세상의 여인의 腹中에 들어가 無垢受胎케 했다는 설정은 영웅 格薩尔의 신성한 혈통을 극대화한 설정이다. 어린 나이에 부정한 출생을 의심받아 추방을 당하고 돌아와 적대자를 정치함으로써 다른 이들의 경외의 대상이 되었다고 했다. 보편적 윤리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질서를 구현하려는 格薩尔의 성격의 일단이 뚜렷하게 부각되게 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어린 시절의 고난을 경험하게 한 숙부를 정치하고 다른 숙부들의 경외의 대상이 되었다고 함으로써 叔姪 간의 대결이 서두에 부각되어 있는 점이 흥미롭다. 格薩尔의 이후의 행적은 다음과 같다.

제2장 納妃称王 : 왕비를 맞아들이고 왕이라 칭하다.

- ◆ 格薩尔가 산을 맡아 지키게 되었다.
- ◆ 부근에 래羅頓巴라고 하는 매우 부유한 자가 있었는데 딸이 셋 있었다.
- ◆ 부모는 맏딸 珠葉을 대식재왕에게, 둘째는 곱니왕에게, 셋째는 고고옥왕에게 시집을 보내기로 했다.
- ◆ 하루는 세딸에게 고사리를 캐오게 했는데, 목교에서 대패달랑을 만났다.
- ◆ 대패달랑과 노래를 주고받으며 수작을 하다가 맏딸이 대패달랑과 결혼하기로 했다.
- ◆ 두 딸이 시집을 간 후 주말은 모친의 구박을 받으며 둘이 함께 살았다.
- ◆ 령국의 산으로 돌아간 대패달랑이 신이한 능력을 발휘해서 石岩에서 말

안장과 駿馬, 宝弓을 취했고 大帳房을 만들었다.

- ◆ 대패달랑이 스스로 格薩尔王이라 칭했다.
- ◆ 사면팔방에서 그 소식을 듣고 귀순하였으며 숙부들도 그를 왕으로 모셨다.
- ◆ 珠茱은 王妃가 되어 石宝座에 앉았다.
- ◆ 格薩尔은 주변의 각 지방(나라)에서 梅薩綳吉 등 10명의 여인을 왕비로 맞아들이고 령국을 다스렸다.

제3장 降伏妖魔：妖魔를 항복시키다.

- ◆ 格薩尔가 주말과 함께 東方의 珠康叉毛라고 하는 곳에 있었다.
- ◆ 次妃인 매살이 惡夢을 꾸고 드러워 격살이를 만나러 왔으나 주말의 방해로 만나지 못했다.
- ◆ 매살은 악몽과 같이 紅風과 黑風 사이로 나타난 黑色의 妖魔에게 납치되었는데, 이를 女婢가 格薩尔에게 알렸다.
- ◆ 格薩尔가 주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방의 요마를 징치하러 떠났다.
- ◆ 요마의 땅에서 阿達拉毛(姆)를 만나 왕비로 삼고 그녀의 도움으로 三頭怪人을 처치하고 북방 요마의 성에 도착했다.
- ◆ 그곳에서 五頭의 牧羊人의 도움으로 매살을 만났다.
- ◆ 매살이 요마로부터 자신을 죽일 수 있는 방책을 알아낸 뒤 格薩尔에게 제치하게 했다.
- ◆ 格薩尔은 령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요마의 영토(魔地)를 관리하며 魔宮에서 매살과 아달랍모와 함께 지냈다.

제4장 霍尔入侵：곽니국이 침범하다.

- ◆ 黃帳王, 白帳王, 黑帳王의 삼형제가 君王으로 다스리는 곽니국은 兵強國富한 나라였다.
- ◆ 곽니국이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곤 했는데, 21세가 된 황장왕이 아름다운 왕비를 구하기 위해 白鵠, 花喜鵲, 紅嘴鴉, 黑老鵠를 보내 알아오게 했다.
- ◆ 黑老鵠이 령국의 왕비 주말을 찾아내어 황장왕에게 왕비로 삼으라 했다.

- ◆ 황장왕의 일차 침입을 세 장군이 물리쳤으나 전황을 염담하러 간 숙부 超同이 황장왕에 잡혔다.
- ◆ 황장왕의 첩자가 되기로 한 초동의 배신으로 령국이 패배했다.
- ◆ 황장왕이 주말을 데려가려 하나 주말이 格薩尔에게 서신을 보내고 3년 동안 시간을 지연시켰으나 격살이가 오지 않아 결국 껍니국으로 끌려갔다.
- ◆ 초동이 령국의 왕이 되었다.

제5장 : 降伏霍尔 : 껍니국을 항복시키다.

- ◆ 령국에 도착한 格薩尔가 부친인 僧唐惹杰을 만나 자신을 노예로 삼은 것 등등의 초동의 행적과 그간의 나라 사정을 듣고 초동을 물속에 잡아 가두었다.
- ◆ 格薩尔는 이전의 처소였던 綠玉蟾大帳房(초록 옥빛이 나는 두꺼비 가죽으로 만든 큰 천막집)에서 모친을 만나 주말의 편지를 접하고 껍니국으로 떠났다.
- ◆ 도중에 赤兔馬를 黑老鴉로, 箭筒을 黑野狗 등으로 변신케 하는 등의 신통력을 발휘해서 黑青蛙, 大紅狗 등의 요마가 지키는 아홉 개의 길을 통과했다.
- ◆ 결식하는 소년으로 變成하여 껍니국의 무나친왕인 갈이와의 딸 각존을 만나 황장, 백장, 흑장의 생명의 근원이 黃野牛, 白野牛, 黑野牛임을 알았다.
- ◆ 格薩尔가 즉시 大鵬金翅鳥로 변신하여 세 마리 소의 머리에 앉아 뿔을 자르고 머리를 釘으로 쪼았더니 세 껍니왕들이 머리가 아파 괴로워했다.
- ◆ 格薩尔가 跳舞人으로 변성하여 궁안으로 들어가 사정을 살핀 후 각존의 도움으로 성문을 연 뒤 세 껍니왕들을 죽이고 주말을 구해내었다.
- ◆ 령국에 돌아와 갖가지 財寶를 껍니국과 령국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니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 ◆ 格薩尔는 인간 세상에 있는 모든 妖魔를 降伏시키고 弱小한 것을 扶助했다.*
- ◆ 强暴한 것을 징치하고, 三界를 安定시키는 사명을 위해 地獄에 가서 왕비인 阿達拉毛와 모친인 噶擦拉茉(牡)를 救回했다.*

◆ 나라일과 아들을 조카에게 부탁하고 자신은 다시 天界로 돌아갔다.*7)

2. 므윈도(Mwindo)

중앙아프리카 자이레 공화국의 니양가(Nyanga)족의 <므윈도:Mwindo>는 널리 알려진 구비영웅서사시이다. 므윈도는 아버지인 셰므윈도(Shemwindo)의 일곱 아내 가운데 한 명으로부터 출생했다.⁸⁾ 셰므윈도가 일곱 아내들에게 동시에 임신을 시키고 그 중에 사내아이를 낳으면 죽이겠다고 했다는 설정이 특별하다. 셰므윈도가 年前에, 그가 아들을 가진다면 그 자신이 고통 속에 빠질 것이라고 하는 불길한 조짐이 있음을 알고 그의 아내들에게 이런 사실을 경고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여섯 아내들은 모두 딸을 출산하지만 한 명의 선택된 아내가 사내아이인 므윈도를 생산했다고 했다.

임신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이한 현상은 영웅의 비범한 출생 요건을 갖추는 구실을 담당한다. 모친의 오두막 집 문 앞에 이미 어디서 온 것인지 알지 못하는 한 다발의 장작(Firewood)이 있었다 하고, 얼마간 후에 집 주위를 둘러보니 한 동이의 물이 있었으며, 다시 얼마간 후에 이수사(Isusa)라고 하는 식물이 집에 있었다고 했다. ‘불’과 ‘물’과 ‘작물’로 개념화되는 세 가지의 매개물이 所從來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왔다고 함으로써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자신의 어미가 담당하고 있는 家事를 대신 수행하는 신이한 행적을 보였다고 함으로써 여느 영웅과 변별되는 특별한 양상을 드러냈다.

그런데 므윈도의 출생은 사내아이를 낳아서는 안된다고 하는 셰므윈도의 금기를 어긴 셈이 되어 므윈도에게 시련이 닥쳤다고 했다. 므윈도가 태어난 오두막 집의 벽에 붙어있던 귀뚜라미가 사내아이가 태어난 사실을 셰므윈도에게 발설하자 셰므윈도가 창과 숫돌을 들고 와서 므윈도를 죽이려 했다고 했다. 갓 태어난 므윈도가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력을 지녀 셰므윈도의 살해시

7) * 표시가 된 것은 劉魁立 主編, 楊恩洪 著, 中國少數民族英雄史詩 《格薩尓》(二版三刷), 浙江教育出版社, 1996, p.10에 제시된 내용을 덧붙여 놓은 부분이다.

8) Daniel Biebuyck & Kahombo C. Mateene Edited & trans., *The Mwindo Epic from banyanga*, (Berkley & L.A.: Univ. of California Press, 1969), pp.41-57 참조.

도는 실패했다고 했다. 므원도를 무덤 속에 묻어버렸으나 탈출하자 북 안에 가두어 강물에 던져버렸다고 했다. 흔히 보이는 ‘嬰兒 殺害’의 신화소가 부자간의 대결이라는 특별한 방식으로 나타났다고 하겠다. 므원도는 오른 손에 왕권을 상징하는 콩가의笏(Conga-scepter)을 쥐고 왼손에는 나무를 깎는 연장을 들었으며, 카홈보의 영혼이 깃든 작은 가방을 왼편으로 엮메고 태어났다고 하여 비범한 출생을 부각시키는 방편으로 삼았다. 부친으로부터 遺棄된 므원도는 이후 자신의 영웅적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영웅서사시의 주인공으로서 부족함이 없게 했다. 북 안에 갇혀 떠내려가다가 야나(Yana) 마을에 이르러 한 여인과 함께 마을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카시에음베(Kasiyembe)라는 여인은 은쿠바(Nkuba)라고 하는 번개의 정령인 힘센 고슴도치에게 명하여 므원도가 있는 오두막을 불태워버리려 했으나 므원도가 벼락을 비껴가게 하여 오히려 마을이 불타고, 카시에음베는 머리에 불이 붙어 죽임을 당했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이 므원도에게 굴복하고 그를 따르기로 했으나, 뱀의 정령인 무키티(Mukiti)⁹⁾를 두려워하자 무키티의 영역인 마법의 물 밖으로 물길을 돌려 무키티를 죽여 버렸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이 므원도에게 피부와 하나가 되는 마법의 칠갑옷을 만들어 주었다. 은쿠바는 이후 므원도의 과업을 성취하게 하는 데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본격적인 부자간의 대결이 벌어지기 이전에 叔姪 간의 대결이 등장했다. 므원도 서사시는 출생과 유기, 시련과 극복의 다채로운 요소를 지닌 서사시로 평가할 만하다. 므원도는 고모인 이양구라(Iyangura)에게 자기들은 지금 투본도(Tubondo:쉐므원도의 마을)로 돌아가 아버지인 쉼므원도에게 복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본도 마을을 불태워 버린 므원도는 숨진 숙부들을 되살려 내었다고 했다.

므원도가 투본도로 귀환하자 부친인 쉼므원도가 므원도를 피해 地下世界(키코카 나무의 뿌리 아래에 있는 세계)로 숨어들었다고 함으로써 직접적인 대결을 벌이지 않고 아들 므원도의 승리를 제시하는 방식을 택한 점이 <문국성본풀이>와 흡사하다.

투본도를 접수한 므원도가 도망간 부친을 찾아 지하세계로 들어갔다고 했다.

9) Mukiti는 신적인 능력을 지닌 물뱀이다. 므원도의 고모인 ‘이양구라(Iyangura)’가 무키티에게 시집을 갔으니 므원도의 고모부가 되는 셈이다.

그곳에서 죽음의 신인 무이사(Muisa)의 딸인 카힌도(Kahindo)를 만났다. 그녀는 아름다웠지만 온 몸에 피부병이 퍼져 붉은 상처가 생겼다고 했다. 그녀의 도움과 므윈도 자신의 능력으로 무이사와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무이사가 제시한 과업들을 성취하고는 무이사를 징치했다.(이 과정에서 므윈도는 두 차례 죽음을 경험하지만 그의笏과 은쿠바, 그리고 이양구라의 도움으로 살아난다) 그 과정에서 므윈도는 카힌도의 병을 완치시킨다. 카힌도가 므윈도에게 청혼을 했으나 므윈도는 인간세상의 여인과 결혼하겠노라며 거절하고 그녀와 헤어진다. 다시 쉘므윈도를 찾았으나 쉘므윈도는 거대한 땅돼지의 정령인 은툼바(Ntumba)가 가로막아 서있는 동굴에 숨어버렸다. 므윈도가 은툼바를 징치했으나 다시 쉘므윈도는 천승의 구름 속으로 몸을 숨겼다. 므윈도가 천상신의 거인 아이들을 만나 그들에게 먹을 것을 만들어주자(그들의 요구였다) 12개의 거대한 그릇을 얹어 길을 만들어 구름 속으로 갈 수 있도록 했다. 천상으로 올라가 천상신과 내기시합을 벌여 처음에는 졌으나 결국에는 승리하여 천상신의 영역과 부친의 생명을 접수할 수 있었다고 했다. 본향으로 귀환하는 길에 자신이 징치한 여러 신격들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고 천상을 다시 무이사에게 돌려주는 등 승리자의 포용력을 한껏 과시하는 방식을 택했다.

투본도에 귀환한 므윈도는 이양구라의 충고를 듣고 마을 사람과 가축들을 되살리고 마을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재건한 마을에서 이양구라를 중궐심으로 좌우에 므윈도와 쉘므윈도가 앉아 마을 회의를 소집한 후 공식적으로 쉘므윈도의 잘못을 스스로 말하도록 하고 므윈도에게 왕의 자리를 넘겨주었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므윈도는 은쿠바를 찬양했다.

므윈도가 위대한 왕이 되어 통치하는 과정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다. 므윈도가 야생돼지가 먹고 싶어 네 명의 피그미들에게 야생돼지를 잡아오도록 했으나 龍이 나타나 세 명의 피그미들을 삼켜 버렸다. 살아남은 한 명의 피그미가 이 사실을 므윈도에게 알리자 므윈도가 직접 왕권을 상징하는 콩가의笏(Conga-scepter)을 사용하여 용을 죽여 버렸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은쿠바(용의 친구이다)가 므윈도를 나무라면서 그를 잡아끌고는 천상으로 올라가 일 년 동안 천상의 日月星辰을 두루 만나게 하고 殺生을 하지 않도록 깨우쳐 주는 등 세상의 이치를 알도록 했다고 했다. 은쿠바와 함께 지상으로 귀환한 므윈도는

부족 사이의 전쟁과 간음 등을 금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고 부족을 조화롭게 통치했다.

각편에 따라서 쉼프윈도는 구금의 상태에서 아들인 므윈도가 자신보다 위대한 영웅이며 통치자임을 지켜보는 것으로 餘生을 보냈다고 하는 내용이 있고, 므윈도에게 자신의 영역을 넘겨주고 다른 지역(산)을 맡아 다스렸다고 하는 내용이 전승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는 <문국성본풀이>에서 문국성에게 쫓겨나 도망치다가 죽어서 다른 마을의 堂神으로 좌정한 소천국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3. <문국성본풀이>¹⁰⁾

- (1) 소천국은 하상천자국 소나무밭 아래서 태어나고, 백주할망은 왕대웃성 갈림길에서 태어난다. 소천국은 제주도로 들어와 가죽옷을 입고 사냥을 하며 산다. <출자>
- (2) 백주할망은 중의 아기를 임신하여 부모의 미움을 산다. <임신>
- (3) 무쇠철갑에 담겨 바다에 버려진다. <상주축출>
- (4) 열론이에 표착한다. <표착>
- (5) 둘은 혼인하여 송당으로 가서 산다. <혼인>
- (6) 농사를 짓기로 하지만, 소천국은 밭 갈던 소를 잡아먹고 만든다. <육식, 대식>
- (7) 이로 인하여 백주또가 소천국과 함께 살 수 없다고 하여 살림을 가른다. <축출>
- (8) 첫 아들 문국성이 자라 아버 없는 자식이라고 놀림 받자 아버지를 찾는다. <부자상봉>
- (9) 문국성은 버터없이 굴다가 소천국의 미움을 산다. <불효>
- (10) 소천국은 문국성을 무쇠철갑에 담아 바다에 띄워 버린다. <상주축출>
- (11) 문국성은 용왕국에 닿는다. <표착>
- (12) 문국성은 용왕국 셋째 딸과 혼인하여 살게 된다. <혼인>

10) 강정식, 「濟州道 당신본풀이의 傳承과 變異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110-111쪽에서 제시한 <이상문본>의 서사단락을 재인용한다. 논의의 필요에 따라 현용준, 진성기의 자료집을 활용한다.

- (13) 식성이 과다하여 함께 살 수 없게 된다. <대식>
- (14) 상자에 담긴 채 쫓겨난다. <상주축출>
- (15) 강남천자국으로 간다. <표착>
- (16) 홍협을 주어 자신의 존재를 알린 뒤 난을 평정한다. <전공>
- (17) 군사를 거느리고 다시 제주도로 돌아온다. <귀향>
- (18) 그 기세에 놀란 소천국과 계모는 죽어 당신이 되고, 형제 자매들도 모두 좌정처를 찾아 떠난다. <부모축출>
- (19) 문국성 부부는 한라산 벼름목에 좌정하여 만민의 제사를 받아먹고 그들을 지켜준다. <좌정>

4. <가문장아기본풀이>¹¹⁾

- (1) 우상실의 할님수가와 알상실의 구예궁전 너설부인이 흥년이 들어 걸식을 하다 만나 결연했다.
- (2) 딸 셋을 낳으니 인장 아기, 뇨장 아기, 가문장 아기이다.
- (3) 가문장 아기를 낳은 후 부자가 되었다.
- (4) 부부가 세 딸에게 發福의 원인을 묻자, 두 딸은 부모덕이라 했다.
- (5) 가문장 아기는 첫째가 하나님 덕이요, 둘째는 따님 덕이요, 셋째는 부모님 덕이요, 넷째는 뱃동 아래 선금(立線) 덕이라 했다.
- (6) 부모가 노하여 가문장 아기를 검은 암소에 의복행장 실어놓고 계집 하녀를 하나 붙여 내쫓았다.
- (7) 부모가 미안하여 큰 딸과 둘째 딸을 불러 가문장 아기가 정말로 떠나고 있는지 알아보라 했다.
- (8) 두 언니가 각기 나와 가문장 아기에게 부모가 죽이러 오니 빨리 도망하라고 거짓을 말했다.
- (9) 가문장 아기가 두 언니를 각각 지네와 말뚝버섯으로 화신시켰다.
- (10) 가문장 아기가 가루를 뿌려 부모를 眼盲케 하고 五方神將을 불러내어

11) 赤松智城·秋葉 隆, 심우성 옮김, 『朝鮮巫俗의 研究』, 東文選, 1991, 269-272쪽의 <박봉춘본>을 제시한다.

일시에 집안을 망하게 했다.

- (11) 가문장 아기가 집을 나서 가다가 마를 캐는 총각 둘을 보고 하녀를 시켜 “인간사는 곳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으나 욕설만 들었다.
- (12) 세 번째 만난 마를 캐는 총각에게 물어 늙은 노파가 사는 초막살이집으로 갔다.
- (13) 마를 캐러 갔던 아들 형제가 돌아와 모친에게 가문장 아기를 유숙시킨 것에 대해 원망하며, 마를 삶아 잔등은 자기들이, 목은 모친에게, 꼬리는 손님에게 주었다.
- (14) 가문장 아기가 고약한 인간이라 여겼다.
- (15) 막내아들이 돌아와 잘 유숙하게 했다고 하고는 마를 삶아 잔등은 모친에게, 목은 손님에게, 꼬리는 자신이 먹었다.
- (16) 가문장 아기가 고운 마음씨를 칭찬했다.
- (17) 가문장 아기가 직접 밥을 지어 주인에게 대접했다.
- (18) 그날 밤, 가문장 아기가 막내아들과 부부의 연을 맺었다.
- (19) 하루는 막내아들이 마를 캐는 곳에 가보니 캐는 곳마다 황금이 가득하여 내다 팔아 거부가 되었다.
- (20) 가문장 아기가 부모를 만날 생각이 간절해져서 걸인잔치를 열었다.
- (21) 하루는 폐맹된 두 노인이 들어왔는데 가문장 아기의 부모였다.
- (22) 가문장 아기가 자신의 정체를 말하자 부모가 깜짝 놀라며 문을 떴다.
- (23) 가문장 아기가 전후의 사정을 말하고 자신은 전상을 차지하기 위하여 인간 세상에 나왔다고 했다.
- (24) 가문장 아기가 부모에게 인간의 세상살이 모두가 전상이라고 알려주었다.

Ⅲ. 대상 자료의 同異의 樣相

1. 敍事 內容의 同異의 樣相

- ① 부모의 결연과 영웅의 혈통은 어떠한가. 人物 推尋의 양상이 어떠한가.¹²⁾

格薩尓는 천신의 후예와 지상의 여인이 결연하여 영웅의 혈통을 부각시키는 방식을 택한다. 돈주알이보가 인간 세상에 내려와 갈찰랍말의 腹中에 들어가 無垢受胎케 한 것은 日照感孕의 신화소의 다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간 세상에 내려와 갈찰랍말이라 하는 여인을 선택한 것은 우리네 무속서사사에서 흔히 나타나는 人物推尋의 신화소와 견주어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는 령국 소왕의 혈통을 이었다고 함으로써 천신의 후예라는 신성성에 현실적 권위가 더해졌다.

트윈도는 족장인 셰프윈도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구비영웅서사시에 흔히 나타나는 왕자로서의 신분적 특징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¹³⁾ 셰프윈도는 정치적 군장으로서의 성격을 지닐 뿐 아니라 신이한 능력도 아우른 존재로 인정된다. 트윈도를 피해 달아난 곳이 지하세계이고 천상계여서 셰프윈도의 초월적 능력을 짐작할 수 있다.

케내깃도의 부모는 소천국과 백주할망이다. 케내깃도는 소천국의 친자가 아니다. 백주할망이 중의 아기를 임신하였다 했으므로 生父의 혈통이 문제될 수 있다. 무속서사시 <당금아기>를 견주어보면 天神의 후예일 가능성이 있고 <사신칠성본풀이>를 고려하면 蛇神系일 가능성도 있다.¹⁴⁾ 소천국의 행적을 보면 육식을 하는 대식가이니 농경과 거리를 둔 존재임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가문장 아기의 부모 혈통이 신성하다고 보기 어렵다. 흥년이 들어 결식을 하고 다녔다고 했으니 보통 사람과 다를 게 없다. “저는 전상차지로 인간의 나왓사오니”¹⁵⁾라는 가문장 아기의 진술에 기대면 가문장 아기는 본디 신적인 존

12) 구비서사시의 혈통과 신이한 출생, 시련과 고난의 양상에 관하여 여러 민족의 사례를 줄고, 『동서양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관도』, 이화여대 인문학연구원 국제 학술대회, 2005. 5.14.(미게재 발표문)에서 소개한 바 있다.

13) 구비영웅서사시의 영웅은 대체로 왕의 혈통을 이었다고 하는 설정이 많다. 스와힐리의 <리웅고>, 밤바라족의 <다-문존>, 푸라니족의 <실라마카>, 말리왕국의 <손자라> 등의 아프리카 서사사에서 흔히 확인된다. 몽골의 <장가르>, 이집트 힐라리 서사시의 <아부 자이드>, 세르보-크로아티아 서사시 <마르코 크랄레비치> 등도 왕의 혈통을 이은 영웅이 등장한다.

14)拙著, 『한국창세서사시연구』, 태학사, 1999의 4장에서 天神일 가능성에 중점을 두어 <천지왕본풀이>와 연계적 논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다르게 볼 개연성도 있다고 인정한다.

15) 赤松智城·秋葉 隆, 심우성 옮김, 『朝鮮巫俗의 研究』, 동문선, 1991. <박봉춘본>

재였다가 인간 세상에 전상차지神으로 좌정하기 위하여 인간 세상에 온 것이 된다. 이런 양상은 <아기장수전설>과 같이 보통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난 신이 한 능력을 지닌 영웅의 이야기에 견줄 수 있다. 대체로 구비영웅서사시에서 부모의 혈통이 초월성을 지니거나 부모가 현실적 권력을 지닌 존재로 등장하는 예에 비추면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人物推尋과 관련해서는 가문장 아기가 집을 떠나 하녀를 시켜 “인간사는 곳이 어디 있느냐 모르니”¹⁶⁾라고 해서 두 측면에서 이해할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단순히 사람이 사는 마을을 물었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의 배필이 될 남성을 찾는 인물추심의 한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는 문면적 이해일 수 있고 후자는 이면적 이해일 수 있다. 신적인 존재가 인간 세상에 내려와 전상차지神으로 좌정하기 위해서 人世의 男性을 推尋하는 것은 천신적 존재가 人世에 하강하여 人世의 女性을 推尋하는 것과 대응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문장 아기가 집을 나서 가다가 마를 캐는 총각 둘을 보고 하녀를 시켜 “인간사는 곳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으나 옥설만 들었다고 하는 대목은 특별하다. 인간사는 곳이 어디인지를 물었는데 옥설을 했다는 행위는 납득하기 어렵다. 인간사는 곳이 어디인지를 인간에게 물었으니 물음 자체가 어이없어 그랬다고 하면 이해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가문장 아기의 어이없는 물음은 단순히 볼 것이 아니라 이면적으로 인물추심과 관련되었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어이없는 물음에 답하는 자를 찾아 가는 추심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한편으로 인간이 사는 세상 곧 자신이 전상차지의 신으로 온전하게 좌정할 수 있는 인간 세상을 찾아 나섰다고 하는 뜻으로 새겨볼 여지가 있다.

② 추방의 원인이 무엇인가.

格薩尒는 無垢受胎한 것이 빌미가 되어 私通의 혐의를 받아 추방당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朱蒙母인 河伯之女, 당금애기와 사신칠성본풀이의 애기와 근사한 양상이다. 트윈도는 아들을 생산하지 못하게 한 부친의 금기를 어긴 것 자체가 원인이 되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고 결국에는 북에 갇혀 추방을 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부친의 예정된 운명을 거슬렀으니 추방당하는 것이 당

16) <박봉춘본>

연하다 하겠으나 人力으로 조절하기 불가능한 禁忌를 설정한 것 자체가 특별하다. 문국성은 부친의 수염을 잡아당기는 등의 버릇없는 행동을 했다 해서 추방을 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어린 아이가 응당 할 수 있는 행동을 트집 잡아 추방했다고 하는 설정 자체가 서사적 문면에 감추어진 특별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한다. 가문장 아기는 發福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함으로써 자신의 예사롭지 않은 성격을 암시하지만 이를 용납하지 않은 부모로부터 추방을 당했다고 하는 설정을 해 놓았다. 부모의 은덕을 첫째로 꼽지 아니하고 하느님의 덕이라 하고 딸의 덕이라 하고 다음으로 부모 덕이라 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배 아래에 있는 선금(立線) 덕이라 했다. 언니 둘을 지네나 버섯으로 만들어 버리는 초월적 능력을 지닌 영웅이어서 發福의 원인을 그렇게 말했다고 보면 설정이 자연스럽다.

③ 영웅과 대립하는 族內 人物은 누구인가.

格薩尓의 적대자는 始終 叔父인 초동이다. 티벳의 多夫一妻制(兄死娶嫂制)의 전통에 기대어 보면 숙부와 조카의 대결은 父子間 對決의 變形으로도 이해할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格薩尓가 國事を 조카에게 맡기고 천상으로 귀환하는 대목에서도 叔姪間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므원도의 적대자는 부친인 쉐므원도이지만 둘 사이의 직접적이고 치열한 대결은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으로 姑母夫人 물뱀의 精靈 무키티와의 대결이 있어 父子와 叔姪間의 二重의 대결이 함께 등장하는 특징을 갖는다. 그렇다고 해도 핵심적인 것은 父子間의 대립이다. <문국성본풀이>에서는 아들인 문국성과 부친인 소천국과의 대립이 이어서 므원도와 여러모로 相同的인 측면이 인정된다. 가문장 아기는 두 언니를 치지했다는 점에서 姊妹間의 대립이 드러나는 특별한 양상을 띠지만 父母와의 대립 역시 예사롭게 보아 넘길 수 없는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된다. 현용준의 <무속자료>와 진성기의 <무가본풀이>에서는 쫓아낸 딸이 걱정이 되어 방을 뛰쳐나가던 가문장 아기의 부모가 문지방에 부딪혀 眼盲하였다고 했으나, <박봉춘본>에서는 가문장 아기가 가루 한 줌을 뿌려서 부모를 眼盲케 하고 이어 五方神將을 불러내어 집안을 일시에 망하게 했다고 함으로써 직접적인 父(母)女간의 대결을 부각시키는 한편, 딸의 승리를 확정한 점이 차별적이다. 시

기적으로 이른 시기에 조사·채록된 자료에서 직접적인 대결이 제시되어 있다고 하는 점이 주목할 만하지만, 이들 자료 사이의 선후관계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④ 영웅이 대립하는 인물을 어떻게 처결하는가.

格薩尔와 숙부인 초동은 시종 대립한다. 친족 내에서의 대립이 국가의 범위로 확대되어 대립한다. 그런데 格薩尔에 의해 1장에서 축출당하거나 도주한 초동이 2장과 3장, 4장에서 계속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런 양상은 서사시 <格薩尔>가 각 장별로 개별적 전승을 지속시킨 사정에서 연유한 것이 아닌가 짐작해 볼 수 있다. 格薩尔와 숙부 초동의 대립이 이 서사시의 핵심적 대립 가운데 하나여서 格薩尔의 행적에 초동이 지속적으로 결부되어야 하기에 생긴 결과로 이해하는 편이 자연스럽다고 하겠다.

므윈도는 고모부인 무키티는 죽음에 이르게 하고 부친인 쉘므윈도는 스스로의 과오를 깨닫게 하고 아들인 자신의 능력이 우월함을 인정하도록 하는 선에서 부자의 대결을 마무리한다. 각편에 따라 다른 결말이 있기는 하지만 쉘므윈도가 므윈도에게 통치권을 넘기고 다른 곳을 맡아 다스렸다고 하는 설정이 일반적이어서 문국성과 소천국의 관계에 대응될 수 있다.

군사를 거느리고 제주도에 귀환한 문국성의 기세에 놀라 소천국이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 결과 堂神으로 좌정했다고 함으로써 특별한 설정을 했다. 부자간의 대결에서 패배한 부친이 죽어 당신이 되었다고 하는 설정은 본래 자신의 좌정처를 아들 문국성에게 이양하고 다른 곳에 좌정했다고 하는 의미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므윈도>의 경우와 상동적이라 볼 수 있다. 므윈도가 쉘므윈도의 영토인 투본도를 공식적으로 넘겨받아 다른 곳을 아울러 다스린 것과 문국성이 한라산 벼름목에 좌정하여 제주의 상징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 사이에는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가문장 아기가 자신의 존재를 깨닫지 못한 부모와 언니들을 직접적으로 징치한 것은 다소 과격한 설정이라 할 수 있다. 신적인 존재의 하강 혹은 인간의 몸을 빌려 인간으로 출생한 것이 직접적인 혈연관계를 다소간 약화시키는 설정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 초

월적 힘으로 흥함을 주는 사례가 드물지 않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부당한 추방에 따른 일차적인 징치가 이루어졌으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설정이 이어져 가문장 아기가 온전한 전상차지神으로 인정받게 하는 데에 긴요하게 활용되는 장치로 작용한다.¹⁷⁾

2. 포괄적 검토

제시된 자료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될 것이다.

	血統	追放/遺棄의 原因	族內 敵對者	敵對者의 處決
格薩尔	天神(王)의 後裔	母親의 私通 嫌疑	叔父	追放·監禁
므원도	王(族長)의 後裔	生男禁忌의 違反	父親 / 姑母夫	拘禁·權力移讓 ·分割統治/死
케내깃도	*凡人의 後裔	不敬한 行動	父親	死 → 堂神坐定
가문장 아기	凡人의 後裔	不敬한 行動	父母 / 두 언니	眼盲 → 開眼/懲治

우선 혈통과 신분의 측면에서 특징적인 면을 살필 수 있다.

神 ----- 王 ----- 凡人

- ㉠格薩尔 ㉡므원도 ㉢가문장 아기
- ㉣케내깃도

신의 직접적인 감잉에서 왕의 아들로, 그리고 凡人 父母의 肉身을 빌어 인간으로 태어난 신의 형상 등이 다양하게 등장한다. ㉠의 사례는 神의 혈통을 이

17) 이상에서 간략하게 살핀 결과를 두고 각 서사시의 양상을 보면 같고 다른 점이 비교적 뚜렷하게 확인된다. 한 가지 특징적인 사항은 <가문장아기본풀이>의 양상이라 생각한다.

어받아 다시 神으로 좌정하는 경우여서 흔히 주몽신화나 라자스탄의 <파부지 Pabūji>¹⁸⁾, <리안자Lianja>¹⁹⁾ 등에서 확인되는 바이다. ㉔의 사례는 王의 혈통을 이어받아 위대한 王(神)으로 추앙받는 경우이겠는데, 아프리카의 <다-몬존Da-Monzon>, 이집트의 <힐라리Hilali>²⁰⁾와 같은 성격이다. ㉕과 ㉖의 사례는 특별해서 다른 민족의 사례에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케내깃도의 경우는 신이기도 하고 인간이기도 한 부모의 혈통을 이었으니 함축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생각한다.

영웅과 친족 내 적대자와 대결양상은 직접적인 대결과 간접적인 대결, 그리고 대결의 목적과 결과에 있어서 이른바 ‘외디프스 콤플렉스’로 알려진 경우와 사뭇 다른 서사 전개를 따르고 있다. 부자간의 대결은 숙질간의 대결로 변형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결이 인간이 거스를 수 없는 운명 때문에 예정되어 있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이웃 집단과 열세의 관계에 있었던 先代의 영웅보다 이를 뒤집어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게 해 준 後代의 영웅이 실제로 있어서 그가 수행한 과업이 부자간의 대결 혹은 숙질간 대결이라는 극단적 양상을 넘어서야 하는 힘든 것이었음을 함축하는 장치로 활용되기도 한다. 인세의 신으로 좌정하기 위해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가 자신의 존재를 인간에게 확인시키는 과정에서 부모에 대한 징치가 등장하는 것은 가장 극단적인 대립의 양상을 통해 신의 위력과 가치를 드러내는 하나의 방편일 수 있다. 신으로서의 좌정이나 왕권의 획득 등이 대결의 결과물이지만 그 결과를 얻기 위해 부자간의 대결이 필연적이었음을 서사 전개 과정에서 제시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해서 구비서사시의 다채로운 양상이 드러난다.

18) John D. Smith, *The epic of Pabūji*(N.Y.: Cambridge Univ. Press, 1991), pp.269-273에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19) Jan Knappert, *Epic Poetry in Swahili*(Leiden: Brill, 1983), pp.19-24에 그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20) Bridget Connelly, *Arab Folk Epic and Identity*(Berkeley & L.A.: Univ. of California Press, 1986), pp.75-78에 줄거리가 소개되어 있다.

IV. 구비영웅서사시 형성과 <문국성본풀이>, <가문장아기본풀이>

한국의 본풀이가 갖는 의의는 구비영웅서사시 형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게 한다는 데에 있다. 본풀이를 읽는 하나의 관점에 해당한다. 한국의 본풀이는 신의 좌정담을 노래하는 구비서사시여서 형성에 다양한 요인들이 개입되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신화의 특정 부분에서 신화 읽기의 단서를 찾아 접근하는 방식과 다르게, 본풀이의 전체 사설이 구성되어 있는 방식에 주목하여 상식적이면서 한편으로는 논의의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본풀이 읽기를 시도할 수 있다.

<문국성본풀이>는 구비서사시로서 본풀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문국성본풀이>가 현재의 <송당본풀이>로 확대된 과정에 대한 강정식의 기존논의는 구비영웅서사시의 형성을 논하는 일반론적 관점을 마련하는 데에 요긴하게 적용된다. 그런데 문국성이 백주할망의 친자이지만 소천국의 친자가 아니기도 하고 친자이기도 해서 혈통의 관계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친자 관계가 아닌 경우, 백주할망과 문국성은 제주에 입도한 외래신일 가능성이 서사시 문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런 혈통 관계가 있어 소천국과 백주할망, 그리고 문국성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생겨나고 그 결과 상호간의 우열이 확정되는 서사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 친자로 설정된 경우에는 부자 대결의 양상을 보다 본격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문장아기본풀이>는 알려진 대로 波斯匿王과 善光公主 사이에 있었던 前生譚, 곧 佛典系 說話에다가 심청가와 같은 開眼說話가 결합된 것이다. 전혀 다른 두 이야기가 하나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결합되어 새로운 서사시로 거듭났다. 佛典系 說話뿐만 아니라 <서동설화> 유형, 곧 <내복에 산다>형 설화를 수용하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대립을 드러내어 새로운 양상으로 서사시의 의미를 만들어낸 사례이다.

시야를 육지부로 돌려도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강춤본 <생긔>은 창세의 내력을 노래하는 본풀이이면서 성주신화, 득남형 설화, 에밀레종 기원형 설화, 장자못형 설화가 다채롭게 들어있어 구비서사시의 형성과 전개과정에

서 볼 수 있는 개방성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석본풀이>와도 연계되어 구비서사시가 편폭을 확장하는 적절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창세서사시가 그것대로 완결되어 있으면서도 <제석본풀이>와 연결되어 인세의 치자인 석가가 당금아기와 결연하여 삼불제석을 낳는 <제석본풀이>의 주인공 역할로 확대되어 있는 내용을 노래한다. 천부지모의 결연에 이은 인간 영웅이 출생하고 이들이 인세의 신으로 좌정하는 二代記의 구성이 갖추어지게 되는 것이다. 창세서사시 본연의 성격이 확대된 결과이면서 창세서사시의 변천의 과정을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생긔>에서는 인세의 치자인 석가가 인간 세상에서 오랜 동안 대단한 위세를 떨치며 살아온 장자를 징치하는 부분이 함께 결부되어 있어 특징적이다. 천부지모의 결연이라는 보편적 신화소가 창세서사시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창세의 주역이면서 인세를 차지한 신이 인간 세상에 자신의 적통을 이은 신들을 남겨둠으로써 인세 치자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우선 이해할 수 있다. 천부지모의 결연과 장자 징치는 제주도 창세서사시의 보편적 신화소여서 북부지역 창세서사시의 변천과 제주도 창세서사시의 전승 양상을 함께 논할 수 있는 소중한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동해안 지역에서 창세서사시의 중요한 신화소인 인세치자 경쟁담이 <제석본풀이> 안에 부분적으로 결합하여 제석신의 성격을 구체화시키고 있어 구비서사시로서의 본풀이가 서사시의 내용을 다채롭게 하는 하나의 방식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삼태자풀이> 역시 창세신화와 제석본풀이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생긔>과 크게 다르지 않다.

① 한 영웅의 다양한 행적이 에피소드별로 개별 전승되다가 이들이 결합하여 한편의 구비영웅서사시로 형성되는 경우 : <格薩尓>, <江格尓>, <마르꼬끄랄레비치>

<格薩尓>의 경우, 숙부 초동의 追放(離脫)과 登場이 반복되는 양상에 주목하면 格薩尓의 일대기로 구성될 수 있는 서사시가 각 장별로 개별적인 전승을 거듭했다고 하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실제로 이 서사시는 부분별로 구연되고 있어서 초동의 出入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格薩尓>는 현재 장죽 자치구에서 口頭本, 手抄本, 木刻本이 전하고 있다 하는데, 총 30부

1백만 行에 달하는 대장편의 구비영웅서사시이다.²¹⁾ 영웅의 개별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전승과 구연이 이루어지는 사례는 몽골의 장편 구비영웅서사시 <江格余>²²⁾, 이집트의 <힐라리>서사시, 세르보-크로아티아의 <마르꼬 꼬랄레비치>서사시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되기에 그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② 각기 다른 영웅 혹은 신에 관한 구비영웅서사시가 한 영웅의 서사시에 편입되어 한편의 구비영웅서사시로 형성되는 경우 : <문국성본풀이>, <므원도>, <江格余>, 강춘옥본 <생긔>²³⁾

<문국성본풀이>가 현재의 송당본풀이로 확대된 과정에 대한 강정식의 기존 논의는 구비영웅서사시의 형성을 논하는 일반론적 관점을 마련하는 데에 요긴하게 적용된다. 강정식은 현재의 송당본풀이가 [백주또본풀이+소천국본풀이+문국성본풀이+용왕녀본풀이+일렛당본풀이]라는 개별신본풀이가 세 단계의 변화를 거쳐 하나의 본풀이로 형성되었음을 논증하고 있다. 그런데 문국성이 백주할망의 친자이지만 소천국의 친자가 아닌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백주할망과

21) 說과 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장죽 자치구의 자료는 唱이 우세하며, 몽골 지역에 전승되는 <格薩尔傳>은 說이 우세하다고 한다. 說唱이 교차하는 양상은 우리네 판소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 구비서사시의 전승방식의 중요한 하나 형태임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22) <江格余>는 현재 35,000餘 行 정도가 확인된다. <마르꼬 꼬랄레비치> 역시 현지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전승이 확인된다. 영웅 마르꼬의 행적과 사건을 개별적으로 전승하는 각편들이 수다하게 있어서 <마르꼬>서사시의 전승 역시 <格薩尔>나 <江格余>와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필자가 현지조사를 한 결과 실제로 세르비아의 구비시인들은 하나의 사건담을 단위로 60분에서 90분 정도의 구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영웅 마르꼬의 일대기를 온전하게 完唱하는 예는 없다.

23) <강춘옥본 생긔>에서는 창세서사시와 제석본풀이가 병렬적으로 이어져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두 서사시의 결합양상의 사례로 인정된다. 두 서사시가 본래 하나의 서사시였다가 후대에 분화되었다고 하는 쪽이 있을 수 있고, 각각의 개별적 서사시가 특별한 제의를 위하여 결합되었다고 하는 쪽이 있을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창세서사시의 변천양상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어서 후자에 속한다. 줄져, 앞의 책에서 이런 점을 다룬 바 있다.

문국성은 제주에 입도한 외래신일 가능성이 서사시 문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런 혈통 관계가 있어 소천국과 백주할망, 그리고 문국성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생겨나고 그 결과 상호간의 우열이 확정되는 서사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문국성본풀이>는 <므원도서사시>와 변별적인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

강정식의 논의는 <므원도서사시>의 형성을 가늠해 보는 데에 있어 유효한 관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므원도서사시>에서 영웅 므원도와 대립의 양상을 보이는 존재들은 쉼프원도, 무키티, 은쿠바이다. 은쿠바는 번개를 다스리는 고슴도치의 정령으로 므원도와 함께 활약하지만 므원도가 자신의 종복으로 자신의 명을 받아 야생돼지를 잡으러 간 피그미들을 잡아먹은 龍을 정치하자, 므원도를 천상계로 잡아가서는 1년 동안 천상을 두루 다니게 하는 대단한 능력을 지닌 존재이다. 은쿤도에 의해 므원도는 천상의 日月星辰을 두루 만나고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되었다고 했으니 은쿤도의 존재가 후반부에 부각되어 있는 셈이다. <므원도서사시>에서는 므원도의 영웅적 과업을 성취하게 하는 절대적 원조자일 따름이지만, 서사시의 후반부에 보이는 은쿤도의 행적은 그 자신이 므원도에 비해 결코 능력이 뒤떨어지는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점을 주목하고 강정식의 기존연구를 가져오면 야나(Yana) 마을에 오랜 전승을 지속시키고 있던 가칭 <은쿤도서사시>의 존재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투본도(Tubondo) 마을에 야나(Yana) 마이 복속된 역사적 사실이 있어서 두 마을의 위대한 영웅에 관한 서사시가 이런 방식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서사시로 형성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무키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야나(Yana) 마을의 숭배의 대상이었던 무키티가 그 지역에서 대단한 위세를 떨쳤다고 하는 점이 서사시의 내용에 드러날 뿐 아니라 투본도(Tubondo) 마을의 쉼프원도가 그의 누이인 이양구라를 무키티와 혼인하게 하는 대목이 장황하게 전승되고 있어서 개별적인 전승을 지속시켰던 <무키티서사시>의 존재를 짐작할 수 있다.

쉼프원도 역시 그에 대한 서사시가 전승을 지속하다가 아들인 므원도가 先代에 비하여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자기네 집단의 긍지를 드높인 사실을 자랑스럽게 노래하기 위하여 二代記로의 서사시 확대가 불가피해졌다고 본다. 쉼

므원도와 무키티의 연합이 실제 두 집단 사이에 지속되다가 므원도에 와서 우열관계를 분명히 하면서 서사시의 결합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는 것이다. 쉘므원도가 누이인 이양구라를 무키티에게 시집보내기로 하는 과정에서 무키티에게 열등한 관계에 있는 쉘므원도의 성격은 <무키티서사시>에 <쉘므원도서사시>가 종속적으로 결합되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므원도서사시>에서 부친인 <쉘므원도서사시>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으나 서사적 전개는 오히려 <쉘므원도서사시>를 종속적으로 연결시킨 <무키티서사시>라 볼 여지가 더 있다. 두 부족 사이의 우열관계가 있어 한 동안 서사시의 결합이 그렇게 지속되었다고 생각한다. 무키티가 므원도에게 징치를 당하는 과정에서 그의 아내이자 므원도의 고모부인 이양구라가 전혀 대응하지 않은 사실에서도 무키티와 이양구라의 혼인이 힘의 우열관계에서 비롯한 불가피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힘의 우열관계를 역전시킨 위대한 영웅이 등장해서 先代의 구비서사시를 영웅 므원도의 서사시로 되돌려놓은 결과가 두 서사시의 결합으로 나타났다고 이해할 수 있다. 후대의 영웅이 위대하다고 하는 점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하여 <무키티서사시>에 종속되어 있는 先代의 <쉘므원도서사시>를 그대로 가져왔다고 보는 편이 전체 서사시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 있어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세계 여러 민족의 구비영웅서사시의 한 유형을 설정하는 것이 전혀 무리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제주도의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를 가지고 논의한 결과를 확장해서 비교논의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적절한 다른 사례로는 <다-문존서사시>와 <실라마카서사시>의 관련양상을 들 수 있다. 두 서사시는 현재 개별적인 전승을 하면서 한편으로 각각의 서사시에 다른 한편의 서사시가 종속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양상을 띤다. 두 집단 사이의 대결과 우열관계를 구비영웅서사시로 전승하면서 한쪽에서 다른 한쪽을 변형시켜 포괄하는 방식으로 두 서사시가 형성되었다고 하는 점을 비교적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²⁴⁾

24) 두 서사시의 관계는 역사적 사건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관련양상이 명확하다. 다-문존과 실라마카가 함보데디오를 매개로 하여 각기 자기네 부족의 구비영웅서사시를 다른 내용으로 전승하고 있어 특별한 관심을 끈다. 제주도의 <문국성본풀이> 역시 강정식의 추론대로 마을의 분리와 함께 나타난 신앙의 변화에 따

몽골의 <江格尒>는 앞서 ①의 사례에 해당하기도 ②의 사례에도 해당한다. 장가르(格薩尒)라는 한 영웅에 관한 서사시이지만 그의 수하에는 올란 홍고르, 알탄 켄에즈, 민양 등 수많은 영웅들이 있어 그들의 영웅적 행위가 독립적으로 전승되어 <格薩尒> 서사시를 온전하게 하는 구실도 한다.²⁵⁾

③ 개별적인 서사시 혹은 설화가 한 영웅의 구비서사시에 대등한 관계로 결합되어 한편의 구비영웅서사시가 형성되는 경우 : <가문장아기본풀이>, <칼레발라>

삼공본풀이의 사례를 토대로 구비서사시의 형성의 한 측면을 확대해서 거론할 다른 민족의 구비서사시 자료를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다른 민족의 구비서사시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해당 민족의 구비설화나 단형의 서사시 등에서 <가문장아기본풀이>와 같은 양상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면밀하게 검토하지는 못했으나 핀란드의 <칼레발라> 정도가 <가문장아기본풀이>와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서사시가 아닐까 생각한다. <칼레발라>는 스웨덴의 강압에서 벗어나려는 핀란드 민족의 민족의식을 일깨우기 위하여 엘리아스 뢰로트(Elias Lönnrot)가 핀란드와 칼레리안에서 단형의 여러 서사시들을 수집하고 재창작하여 1836년과 1849년 두 차례에 걸쳐 완성시킨 작품이다²⁶⁾. <칼레발라>가 배이내피이넨(Väinämöinen)을 중심으로 그의 출생과 일마리넨(Ilmarinen)과 렘민카이넨(Lemminkäinen) 등과 관련된 사건들, 그리고 최종 행적을 22,795행에 걸쳐 온전하게 다루고 있다. <칼레발라>가 구비서사시의 전통을 계승한 창작서사시이지만 <칼레발라>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건들은 각기

라 아들 세대의 본풀이가 필요했다고 보면, 개별 서사시의 형성과 통합은 設村의 來歷과 設堂의 來歷을 아울러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주도 당본풀이를 비역사적 구비서사시로 단언하기 어려운 사정이 여기에 있다.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역사적 정황을 노래한다는 점이 구비서사시의 형성과 전승에 전승집단의 내력이 개재해 있다고 하는 관점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겠다.

25) 몽골에서 간행된 <Жангар:格薩尒> 서사시를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초벌 번역이 끝나 중국에서 간행된 서사시 자료와 대비하는 과정에 있다. 번역본을 출간하여 학계에 소개하고자 한다.

26) F. J. Oinas ed., "The Balto-Finnic Epics", *Heoric Epic and Saga* (Bloomington : Indiana Univ. Press), pp.285 참조.

개별적으로 아무런 관련없이 전승되었던 단형의 구비서사시이기 때문에 <가문장아기본풀이>의 형성의 양상과 대응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문장아기본풀이>의 서사적 내용이 가장 뚜렷하게 이러한 양상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서사시론을 전개하는 기본적 논거와 사례로 삼을 수 있다.²⁷⁾

범박하게 세 유형을 설정했으나 이 셋이 전혀 개별적인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각각의 설정된 유형이 경우에 따라서 선후의 관계를 맺으면서 구비서사시의 형성과 변천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③형에서 확인되는 개별적인 설화나 단형의 서사시가 영웅의 일대기나 행적에 긴밀하게 결합하기 이전의 단계는 ①의 사례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영웅의 대단한 능력을 부각시킬 수 있는 다채로운 사건들은 ③의 사례에서 <내복에 산다>형과 <심청가>형이 결합되기 이전의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가문장아기의 행적을 노래하는 구비서사시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려져 있는 셈이다.²⁸⁾ ③과 ①의 방식으로 형성되어 전승을 지속시키는 구비서사시가 특별한 필요에 의하여 ②형으로 확대되기도 할 것이다.²⁹⁾

V. 결론을 대신하여

구비서사시의 관점에서 한국의 본풀이를 다른 민족들의 구비영웅서사시와 작품론적 관점에서 견주어 논의하는 것은 그 자체로 완결된 논의일 수 있으나, 그 결과를 작품의 비교론에 한정하지 말고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어느 방향으

27) <칼레발라>가 여하튼 구비전승물의 창작기록서사시여서 <가문장아기본풀이>와 차별성을 지닌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가문장아기본풀이> 역시 전상차지神의 신앙이 특별하게 필요해서 형성된 것이라면 기존의 구비전승물을 받아 들여 새롭게 재구성한 혹은 창작한 서사시일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28) 무속신앙을 근간으로 하는 구비서사시가 그렇지 않은 구비서사시보다 서사시의 확대가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

29) 형성의 과정이 단순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른 사례들을 더욱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다.

로 확대할 것인가 하는 것은 논자의 판단에 따를 일이지만, 구비영웅서사시의 형성에 관한 측면으로 확대하는 것도 적지 않은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장편구비서사시로의 전승은 구비서정시나 단형의 서사적 구비시가 등과 같은 단형의 노래가 개별적으로 전승되다가 하나의 서사시로 포괄되어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여러 서사시에 수용되어 있는 단형의 노래들만으로 구비영웅서사시의 형성을 일률적으로 논하기는 어렵다.³⁰⁾ 단

30) A. B. Lord의 견해는 이런 점에서 한계가 있다. 단형의 노래가 수용되어 장편의 구비서사시가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은 유효하지만 논점이 편향되어 있을 때에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한다. 로드의 견해가 지닌 문제점은 단형의 노래가 수용된 양상을 살핀 결과를 구비서사시론의 일반론으로 확대되면서 부당한 판단을 내리는 데에 활용되고 있다는 데에 있다. 본고의 논의와 직접적인 연결이 어렵다고 할 수 있으나 참고로 그 사정을 소개한다. 세르보-크로아티아 서사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로드의 문제점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그는 그의 유명한 저작인 『Singers of Tales』의 결과를 가지고 <일리아스>와 투르크서사시에 적용하고 그 결과를 세르보-크로아티아 구비서사시에 다시 적용했다. 그런데 그의 연구에 있어 약점이 있었다. 그에게 세르보-크로아티아 서사시 자료를 제공한 이는 무슬림이었다. A. B. Lord가 세르보-크로아티아 구비서사시를 중앙아시아민족의 그것들과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마르코 꼬랄레비치 : Marko Kraljević>, <얀코비치 스토얀 : Janković Stojan>, <둘리치 이브라힘 : Dulić Ibrahim> 가운데 세르보-크로아티아 서사시의 정점에 해당하는 <마르코 꼬랄레비치 : Marko Kraljević>를 다분히 예외적인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무슬림 음유시인의 연창 자료를 활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그 결과 세르보-크로아티아 구비서사시 가운데 <마르코 꼬랄레비치>가 중앙아시아와 서유럽의 구비서사시와 상대적으로 상동성을 가장 적게 지닌 작품으로 평가받아, 다소간 예외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무슬림 음유시인이 제공한 세르보-크로아티아 서사시는 상대적으로 발칸지역의 정복자였던 터키의 구비서사시와 상대적으로 친연적인 양상이 확인되는데, Lord는 상동성이 많이 확인되는 자료들을 세르보-크로아티아 서사시의 핵심으로 인정하고 <마르코 꼬랄레비치 : Marko Kraljević>를 다분히 예외적인 사례로 평가하는 오류를 범했다.(<마르코 꼬랄레비치 : Marko Kraljević>의 ‘혼인의 노래’를 거론하면 사정은 명확해진다. 이 서사시의 이 대목은 서구 및 중앙아시아와 견주어 보면 전혀 다른 설정을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터키의 <후르슈트와 마미리>, <아식 가랍과 샤 사넴>과 같은 서사시는 혼인의 노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표적 서사시이다. 로드는 이런 서사시와 유사한 서사시를 세르비아에서 찾아 논의를 전개했다. 그런데 <마르코 꼬랄레비치>에서는 혼인과 관련하여 마르코가 피압되지도 않고 마르코 자신이 위협에 처하지도 않는다. 닥친 혼사장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해결될 따름이다. ‘혼인의 노래’와 관련해서 서구의 학자들은 <마르코 꼬랄레비치>가

형의 노래들이 하나의 서사시를 형성하는 데에 특별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의 방식이 아닐 것이고 그 경우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로 구비서사시 형성의 몇 양상을 상정해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제주도의 당본풀이와 일반신본풀이 등 다채로운 본풀이에서 구비서사시 형성의 가능한 유형을 설정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비교논의로 확대시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구비서사시의 다양한 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유형화하고 이를 일반론으로 확대할 때 한국의 본풀이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凡人의 후손이 신으로 좌정하는 양상이 한국 무속 신앙의 개별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나 다른 민족들에게서 이런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면 비교논의를 통한 일반론적 접근이 가능해진다. 역사적 실존인물이 무속 신의 본풀이로 변화를 일으킨 사례 역시 마찬가지이다.³¹⁾ 보편종교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서사시의 성격에 변화를 일으킨 사례가 다른 민족들의 서사시에서 확인되는 바이지만³²⁾ <이공본풀이>의 할락궁이와 같이 보편종교의 특별한 목적에 의해 전승되는 설화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제기되는 서사시

대단히 예외적인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이 서사시는 세르비아정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무슬림과는 변별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 결과 세르보-크로아티아 구비서사시가 서구의 서사시와 중앙아시아 구비서사시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아 성립되었을 가능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세르보-크로아티아 구비서사시의 개별성을 적지않게 훼손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물론 이 논의에서 기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Lord의 논의가 형성의 외래적 요소들을 부각시킴으로써 기원에 관한 논의를 무용하게 하는 교묘한 힘을 발휘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A. B. Lord, *Epic Singers and Oral Tradition* (N.Y. : Cornell Univ. Press, 1991)에서 이런 사정이 확인된다.

31) <구농야방본풀이>, <세민황제본풀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32) <손자라:순자타Sonjara:Sunjata>서사시의 서두 부분은 이런 사정이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다. 아프리카 말리제국을 건설했던 위대한 영웅 손자라(Sonjara: Sunjata)는 신에 의해 창조된 10번째 아담에서 비롯하여 노아를 거치는 혈통적 계보를 서사시를 통해 장황하게 노래한다. 무슬림의 영향임은 당연하다. 헝가리의 민족기원신화는 아예 성경의 창세기를 신화 속에 편입시켜 재편하고 전승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산문화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율격을 내재하고 있어 구비서사시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 헝가리의 신화의 재편 양상에 관해서는 拙稿, 헝가리의 創世 및 民族起源神話의 再編樣相, 『동유럽연구』 13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2003에서 다루었다.

의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본풀이 곧 구비서사시가 食性이 대단해서 주변의 여러 가지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 약점일 수는 없다. 그렇게 변천을 거듭한 사정이 구비전승의 서사시로서 생명력을 지속시키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 의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겠다.

주제어 : 본풀이, 구비영웅서사시, 게사르(格薩尓), 므윈도(Mwindo), 문국성본풀이, 가문장아기본풀이

참고문헌

- 강정식, 『濟州道 당신본풀이의 傳承과 變異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 박종성, 『한국창세사시연구』, 태학사, 1999.
- 박종성, 『동서양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판도』, 이화여대 인문학연구원 국제학술
대회, 2005. 5.14.(미게재 발표문).
- 박종성, 『헝가리의 創世 및 民族起源神話의 再編樣相』, 『동유럽연구』 13집, 한
국의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2003.
- 王沂暖, 『格薩尔王本事』, 中國民間文藝出版社, 1985.
- 劉魁立 主編, 楊恩洪 著, 『中國少數民族英雄史詩 《格薩尔》』(二版三刷), 浙江
教育出版社, 1996.
- 赤松智城・秋葉 隆, 심우성 옮김, 『朝鮮巫俗의 研究』, 東文選, 1991.
- A. B. Lord, *Epic Singers and Oral Tradition*, N.Y.: Cornell Univ. Press,
1991.
- Alexanda David-Neel and The Lama Yongden trans., *The Superhuman Life
of Ling*, London: Rider, 1933.
- Bridget Connelly, *Arab Folk Epic and Identity*, Berkeley & L.A.: Univ. of
California Press, 1986.
- Daniel Biebuyck & Kahombo C. Mateene Edited & trans., *The Mwindo Epic
from banyanga*, Berkley & L.A.: Univ. of California Press, 1969.
- F. J. Oinas ed., “The Balto-Finnic Epics”, *Heoric Epic and Saga*,
Bloomington: Indiana Univ. Press.
- Jan Knappert, *Epic Poetry in Swahili*, Leiden: Brill, 1983.
- John D. Smith, *The epic of Pābūji*, N.Y.: Cambridge Univ. Press, 1991.

<Abstract>

Comparative Studies on Korean Bonpuri and Oral Epic of Heros, the Two Aspects

Park, Jong-Seong

Korean Bonpuri (which means songs of history of a god, narrated by a shaman) has a enormous academical importance when it is compared with oral epic of hero. From compar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contents to viewing the problems concerned on formation of an oral epic of hero, it could be used with urgent importances. Approaching these facts, this article deals two aspects on Korean Bonpuri. Materials used for comparative studies are followings: <게사르(格薩尓, Gheshar)>, <므윈도(Mwindo)>, <문국성본풀이(Munkuksong Bonpuri)>, <가문장아기본풀이(Gamunjanghaghi Bonpuri)>.

First, giving a good attention to the fact that from four all used materials of oral epic of hero appear confrontations between father and son and exists opponent of a hero in the family, studies are concentrated on specific features of confrontations. It is very important fact that, in spite the epics are from different peoples, these epics narrate similar contents in a similar composition.

Second, concerned on the problems of formation of oral epic of hero, Korean Bopuri has an academical importance as a well-founded materials. In this article I established 3 provisional types for approachinf the problems of formation. ① From the beginning diverse achievements of hero's lifetime is narrated by each episode but in the end these are put together forming one oral epic of hero. ② Different oral epics of hero are being inserted in another one, and this forms one separate oral epic of hero. ③ Different epic

or a story is combined together in a equal relation becoming one separat oral epic of hero.

From the fact that the diverse aspects of formation of oral epic of hero are accepted, for verifying the specific features of formations oral epics of hero, for typological approaches on formations of the epic, Korean Bonpuri has a great importance.

Key Words : Bonpuri, Oral epic of hero, Gheshar(게사르, 格薩尓), Mwindo (므윈도), Munkuksong Bonpuri(문국성본풀이), Gamunjanghaghi Bonpuri(가문장아기본풀이)